CALS newsletter No. 24 2013. 6. |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newslette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학래, 편집인 : 최진용
편 집 : 대외협력 · 홍보위원회
(김광수 · 김성배 · 김학진 · 류영렬 · 배의영 · 이창규 · 임상준 · Hong Sok(Brian) Kim)

자랑스러운 농생대 동문 초청
조찬 간담회 개최

■ 우리 대학은 4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자랑스러운 동문 초청 조찬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18대 정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된 동문을 초청하여 취임을 축하하고 모교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 인사 6명(정윤환 前동창회장,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태호 의원, 염태영 수원 시장, 나승일 교육부 차관, 이학재 의원, 이상 학번순)과 이정재(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이인원(서울대 법인이사), 김형래(서울대 총학생회장), 이학래 학장과 농생대 보직교수 등 30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오기봉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학래 학장은 초청된 동문을 소개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비전을 갖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상록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다고 격려하였다. 이어서 대학의 현황 및 현안 사업을 설명하면서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학술림과 수목원의 양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학의 학술림과 수목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수원에 있는 농장은 시설 노후화 및 작물재배 공간 협소,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등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AgBio 창조연구단지(Creative AgBio R&D Park) 조성 사업을 설명하면서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자리에 참석한 동문들은 대학발전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며 농생대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명예교수 간담회

■ 우리 대학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6일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명예교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26명의 명예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집행부를 비롯한 현직 교수들이 함께 했다. 이학래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스승의 날 기념 카네이션 증정 및 옛 수원캠퍼스의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되었다. 명예교수들은 2003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각 건물들이 쾌적하게 관리가 되는 것에 대해 흡족해하였다. 또한 농생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참석한 후배 교수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였으며, 제3식당(75-1동) 2층에 마련된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의 전당을 관람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6~8면_Interview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10~11면_기금출연
12면_농생대 사람들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

2013학년도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가 6월 17일~18일 강원도 평창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 총 94명의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교수학사협의회에 앞서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조성인 원장이 평창 그린바이오 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교무, 학생, 연구, 기획 업무 순서로 각각 부학장이 발표하였고 실험목장의 현황에 대하여 임정묵 목장장이 설명하였다. 각 부서의 발표를 마친 후 학부와 전공의 교수들은 농생대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교수학사협의회는 농생대의 발전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1년에 두 번 개최된다.

심포지엄 개최

극동 지역 농업 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경제사회학부 농업 · 자원경제학전공에서는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서 6월 25일 "Sustainability, ecology, and agricultural economics in Far East"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러시아 연해주 농업 아카데미와 함께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해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연환경 변화와 채소 및 대두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 소 유전체 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

동물생명공학부 김희발 교수는 7월 11~12일 농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서 'The Global Genomic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Impact on Livestock Production'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UK University of Nottingham의 Olivier Hanotte, UK Roslin University의 Dave W. Burt, 케냐 ILRI의 Steve Kemp, Okeyo Mwai, Tadelle Dessie, 호주 University of New England의 John Gibson 등 세계 석학들을 초청하여 동물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육종연구의 실용화 및 세계화를 논의하였다. 특히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육종의 글로벌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CALS 농생명산업특강: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5월 7일 SPC 연구동 101호에서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농생명산업특강이 있었다. 김치의 제품, 기술 개발, 품질 표준화 및 식품안전성 확보 등의 노력으로 꿈을 가지고 도전하여 김치의 세계화를 이룬 본인의 성공사례에 대해 강연하였다. 김치 전문 기업 ㈜한성식품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 세계김치협회 회장이기도 한 김순자 대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한민국 전통식품 김치명인 제1호로 지정받았다. 또한 20가지 이상의 김치 특허를 받은 김치 발명왕으로서 김치의 세계화에 앞장섰으며, 2012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었다.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5월 28일 SPC 연구동 101호에서 여성학자 오한숙희씨를 초청하여 "행복을 불러오는 찰떡대화법"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잘하는 법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찰떡 대화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눈을 맞추고 경청하며, 정확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칭찬하기 등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작용이라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대화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성학자 오한숙희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받았다.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소 부소장, 김포여성민우회 상담소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학자, 사회학자, 작가, 시민사회운동가, 프로그램 진행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동제

주제: 5가지 욕구

5월 13일, 학교가 축제 분위기로 무르익던 화창한 봄날, 제3식당(75-1동) 앞에서 대동제가 열렸다. 농생대에는 봄 축제인 대동제와 가을 축제인 경천제가 있다. 대동제는 농생대 봄 축제로, 농생대 학생들이 기획, 진행하는 농생대 학생들을 위한 축제다. 이번 대동제는 다섯 가지 욕구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축제는 낮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렸으며 농생대 학생뿐만 아니라 교내 다른 단대의 많은 학생들이 함께 축제를 즐겼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해

이번 대동제는 5월 13일 낮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번 대동제는 '욕구'라는 주제를 틀로 구성되었다. 욕구라는 주제에 맞춰 ▲물풍선 던지기(목욕) ▲두더지게임(파괴욕) ▲목소리 크게 내기(聲욕) ▲경품추첨(金욕) ▲저렴한 가격의 장터(식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중심 프로그램인 장터가 축제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되었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각 이벤트가 시간대별로 열렸다.

올해 대동제는 프로그램의 수를 다섯 가지로 대폭 줄였다. 저녁행사를 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낮 11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축제를 기획한 농생대 연석회의 의장 임준호씨는 "밴드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저녁시간에 진행 돼 많은 학생들이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밴드와 저녁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씨는 "작년 대동제는 정치적 논의가 주를 이뤄 재미를 얻는 측면이 부족해 올해는 작년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대동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축제 시간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장터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삼겹살 1인분 당 1,000원, 막걸리 한병 당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 장터의 인기 비결이었다. 임준호씨의 말에 따르면 동물생명공학부 선배를 통해 하이포크 삼겹살 200kg을 후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삼겹살을 판매할 수 있었다. 임씨는 "막걸리는 구매한 가격 그대로 판매해 이윤보다는 많은 사람이 장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장터가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농생대 동문의 지원, 그리고 이윤보다는 학생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외에 물풍선 던지기는 각 과의 회장단이 얼굴 크기의 작은 구멍이 뚫린 판자 뒤에 서서 과 구성원들로부터 물풍선을 맞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경품추첨은 장터에서 번호가 적힌 사탕을 1인당 최대 두 개씩 판매하고 축제 마지막에 추첨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경품추첨 역시 준비했던 모든 사탕이 팔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대동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대동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대동제의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서는 장터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새내기인 김병건(농경제사회학부 13)씨는 "고기가 저렴하면서도 맛있다"며 장터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농대생의 결집을 다지면서 동시에 타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대동제가 농생대인들의 결집을 다지는 역할을 잘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A(동물생명공학전공 11)씨는 이번 대동제가 예전과 비교하여 어떠냐는 질문에 "매년 장터 프로그램을 하지만 이번이 가장 좋다"며 장터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작년에 비해 심플한 구성이 좋다"며 기존과 다른 간소한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김동현(바이오소재공학전공 12)씨는 물풍선 던지기에 대해 "어려운 관계의 선배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으며 장터에 대해서는 "고기질이 좋고 값도 싸서 좋았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점들도 상당 부분 지적 돼

대동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지적됐다. 우선 장터의 예약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번 장터에서는 혼잡을 줄임과 동시에 테이블마다 음식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불판과 가스레인지를 예약을 받아 제공했다. 김동현씨는 "예약제가 불편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도 불편했다"며 예약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사람이 많은 1~2시 경에는 예약이 밀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병건씨는 "날이 더운데 천막 같은 햇빛을 가리는 시설이 부족하다"며 이번 대동제 장터에 대한 또 다른 아쉬운 점을 말했다. 홍보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현 씨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봤지만 포스터는 보지 못했으며 대동제에 대해서는 주로 과 동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말했고, 김병건씨는 "직접 본 홍보 수단은 며칠 전에 붙은 포스터가 전부다"라며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농생대인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이번 대동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동현씨는 "농생대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동제는 많은 농생대인들이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고 장터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많은 농생대인들이 대동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양준현**

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김주곤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김주곤 교수(식물생산과학부)

김주곤 교수가 2013년 6월 1일자로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과학전공 교수로 부임하여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종자생명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었다. 김주곤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과정,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근무하였고, 1996년부터 명지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전공은 식량작물생명공학이며 국제종자생명공학특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1977년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에 입학하여 수원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지 벌써 3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7년간 타 대학에 있다가 정년을 10년 앞둔 시점에서 모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론 책임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은 공사장분위기가 느껴지는 평창캠퍼스에서 한 달을 살아보니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서울과는 비교될 수 없는 좋은 공기와 경치, 새소리와 시냇물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최고수준의 연구시설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줍니다. 종자생명과학연구소에 제일먼저 입주했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신임교수2분을 모시면 어느 정도 연구소로써의 규모가 갖춰지고 평창캠퍼스에 주어진 교육, 연구 그리고 산학협력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강상기 교수, 농생명공학부

강상기 교수(농생명공학부)

강상기 교수가 2013년 5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했다. 강상기 교수는 건국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하였고, 본교에서 석사과정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서울대 및 Texas A&M Universit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 전공은 동물소재공학이며 친환경축산소재 분야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1999년 2월 농생명공학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서울대학교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것이 어느덧 10여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여러 은사님께 받은 높은 가르침은 저에게 있어서 학문적인 성취의 굳건한 토대일 뿐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키우는 풍성한 자양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와 새로 출범하는 평창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다시 여러 은사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봉직하는 동안 제가 서울대학교로부터 받았던 큰 은혜를 다시 우리 후학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일말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터키 Ondokuz Mayis University 국제협력책임자 Husrev Mennan 교수 접견

4월 23일 터키 Ondokuz Mayis University 국제협력책임자 Husrev Mennan 교수가 농생대를 방문하였다. 우리 대학과 Ondokuz Mayis University는 터키 정부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외국과의 교원 및 학생 교환프로그램 "Mevlana"를 이용하여, 연간 학생 2명, 교수 2명 정도의 상호방문 협약추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기념식수 행사

우리 대학은 한인규 전 학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기념식수 행사를 4월 20일 농생대 상록관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규 전 학장과 이학래 학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교수,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한인규 전 학장은 학장 재임 시 농생대교육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대학 발전과 장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고, 대학 명칭을 농업생명과학대학(CALS)으로 변경하여 학문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IBRD교육차관을 도입, 지금의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을 설립하여 첨단연구시설을 갖추는 디딤돌 역할을 하여 농생대의 연구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고, 상록농업생명과학대학연구대상 제도를 도입하여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한인규 전 학장은 표석에 '모교의 발전을 빌며' 라는 문구를 남겨 그 의미를 더하였다.

농학도서관 공동학습실 설치

농학도서관(관장 이준호 교수)에서는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그룹스터디룸을 4월 17일 지하 자료실에 설치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공동학습을 통한 과제 해결의 공간을 제공하고 말하기 훈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룹스터디룸은 3인 이상의 학생이 같이 공부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과 빔프로젝트, 롤스크린, 글라스보드, 전기코드 등이 갖추어져있다. 공동학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화(880-9040), 이메일(aglib@snu.ac.kr) 또는 농학도서관 대출실에 직접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BPCS 교육프로그램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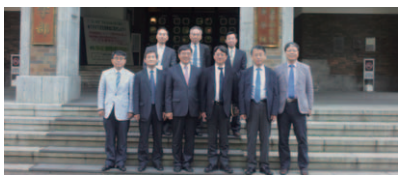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에서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농업생명과학대학 203동 201호에서 국내 식품 관련 산업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BPCS (Better Process Control School)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인삼공사, 농심, 롯데, 동원F&B, 사조산업, 오뚜기 등 식품회사의 실무자들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강사진으로는 해외에서 Barbara Rasco 교수(Washington State University), Gleyn E. Bledsoe 교수(Idaho University)를 초빙하였고, 본 연구소에서는 강동현 교수(농생명공학부)가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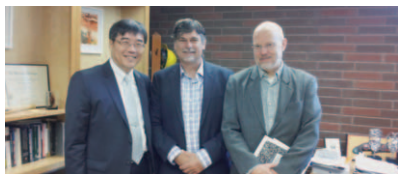
교직원 자녀를 위한 봄 숲교실

수목원(원장 박필선 교수)은 5월 11일 '2013 서울대학교 교직원 자녀를 위한 봄 숲교실' 을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3가족이 참가하여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나무의 소중함, 숲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장 필모식

농장(농장장 이석하 교수)은 6월 3일 오후 3시부터 수원 캠퍼스 답작포 및 잔디밭에서 필모식 행사를 개최했다. 필모식은 매년 모내기를 끝낼 무렵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여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모내기 체험을 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이학래 학장과 고희종 교수 등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권용웅, 김성수 명예교수와 작물생명과학전공, 원예과학전공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수원소재 부속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학래 학장, 이석하 농장장 등 교수들은 풍년을 기원하고 먼저 모내는 시범을 보인 뒤 이어 학생들이 참여했다. 모내기 체험을 마친 교수, 직원, 학생들은(주)동부팜한농에서 협찬한 돼지바비큐 등의 음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서울대학교 학술림 양도 관련 해외대학 방문

이학래 학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교수들은(오기봉 교무부학장, 권오상 학생부학장, 백남천 연구부학장, 이우신 학술림장)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하여 학술림과 관련 기관을 돌아보았다. 이번 방문은 홋카이도 대학의 학술림 운영 노하우와 특별히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농생대의 현안인 학술림 양도와 관련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홋카이도 대학 방문에 이어서 이학래 학장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오레곤 대학을 방문하였다. 오레곤 대학의 농학대학과 임업대학의 시설과 학술림을 방문하고 관련 교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생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앞으로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학술교류 협정을 맺기 위하여 논의하였다.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농장

부속기관 우수기관 선정

본부 기획과에서 시행한 2012년도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평가에서 우리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과 농장이 각 1위를 하였다. 부속시설별 규모에 따라 大, 中, 小로 분류하였고, 기관 평가와 발전도 평가를 각각 심사하였다.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은 大기관 발전도평가 1위, 농장은 中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각 기관은 상금 200만원(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상금 300만원(농장)을 받았다.

CALSP 특강

정철영 교수(산업인력개발학 전공)는 6월 29일 농업생명과학대학 학부모 모임(CALSP)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의 진로 및 심리 특성, 학교 및 부모의 역할,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생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식물' 병원에서부터 연구와 교육의 장까지, 식물병원을 방문하다

수의과대학에 동물병원이 있다면, 농업생명과학대학에는 식물병원이 있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조금은 생소한 서울대학교 식물병원을 탐방해 보았다.

식물이 아프면 이곳으로

서울대학교 식물병원은 1999년 9월부터 단과대학 내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오던 수목병원이 2005년 12월 확대 개편되면서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200동) 건물 안에 있던 것이 2009년 9월 확장 이전하여, 현재는 200동 옆 건물인 SPC동(203동) 301호에 위치하고 있다. 2006년 이경준 교수(산림환경학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현재 이용환 교수(식물미생물학)가 5대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식물병원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식물병원은 조경 수목, 화훼류, 농작물 등 유용식물의 병해충이나 생리적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리적 이동이 어려운 식물의 특성상 진료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현지방문도 실시한다. 식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식물상담 게시판이 있어, 사진과 함께 증상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 이에 맞춰 진단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물 진료와 상담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대부분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연구·개발에서 에코 캠퍼스 조성까지

식물병원은 그 밖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식물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월에는 식물병원 내에 산림청 지정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를 개원하였고, 산림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식물병원은 서울대 '에코 캠퍼스' 조성 사업에 일조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의 수종 파악을 완료했으며, 2013년 안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의 전체 수종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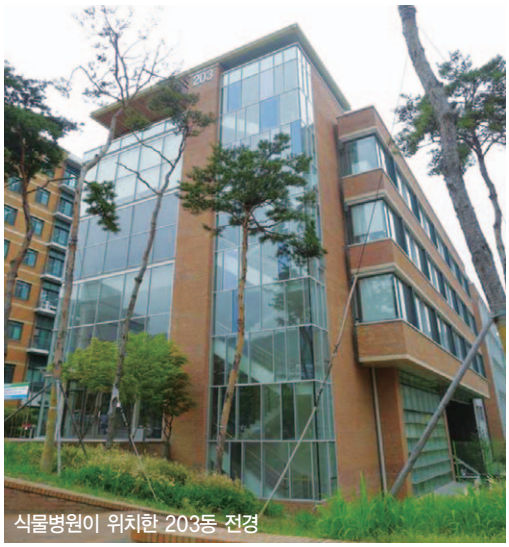
식물병원은 관악캠퍼스 안에서 매년 1월과 6월에 5일에 걸친 조경수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조경수 관리교육은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교육생이 수강하였다고 한다. 조경수 관리의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교육하며 조경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 교육부터는 서울대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생이라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장 이용환 교수는 "많은 분들이 식물병원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쉽다"며 더불어 "서울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열려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탐방 후 느낀 점

이전에는 식물병원이 있다는 것을 듣기만 했을 뿐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 식물병원에서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조경수 관리교육에 참가해 조경수에 대해 꼭 배워보고 싶다. 학우나 동문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식물병원 홈페이지 : http://plaza.snu.ac.kr/~plclinic/
식물병원 연락처 : 02-880-4697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박수범**


식물병원이 위치한 203동 전경

식물병 샘플 현미경 관찰 중인 나용준 명예교수

수간주사 하는 방법 설명

가지치기

식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UNCCD COP10 의장 이돈구(임학 · 65) 동문을 만나고 오다

'산림', 우연히 만난 평생의 동반자

임학과 이돈구 동문은 1965년에 서울대학교 임학과에 입학 해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다시 석사와 박사를 딴 임학 분야의 전문가다. 교육계에서는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 임학과(현 산림환경학 전공)에 부임해 학과장, 학술림장 등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도 2004년 한국임학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했고 '동북아 산림포럼' 과 같은 국제단체의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더불어 2005년에는 세계 산림연구기관 연합회(IUFRO) 회장에 선출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산림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주는 중책을 맡았다. 2011년 이돈구 동문은 공무원 중에서만 선출되던 산림청장에 발탁되기도 했는데, 교수로는 사상 처음이라는 특이한 이력 덕분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임학 분야의 선구자라는 기자의 말에 "현신규 교수님과 같은 분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전국의 헐벗은 산을 녹화하고, 각국과의 공조를 통해 사막화를 예방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 해왔다.

임학을 평생의 벗으로 삼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돈구 동문이 임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1967년, 정부에서 산림청을 세운다는 말에 임학과에 진학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흥미로운 분야"라고 말할 만큼 산림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학계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돈구 동문은 '조림학' 과 '복원생태학' 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평창의 가리왕산 복원은 이돈구 동문이 거둔 가장 대표적인 성과다. "식생의 원형을 찾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에서 종자를 가져오기도 했다"며 "산림과 함께 곤충과 여러 동물들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교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산림청장에 선출된 것에 대해 이돈구 동문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고 모든 행동에 신중해야만 했다"며 당시 느꼈던 어려움을 얘기했다. 공무원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관성' 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교수 출신인 덕택에 '가장 현장과 근접했던 산림청장' 으로 불릴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탑-다운' 방식의 획일적인 업무 진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변화를 이끌었다. 이돈구 동문은 "산림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목표했던 해외업무부서와 국제협력기구의 신설도 이뤘다"며 산림청장으로서의 기간을 회상했다.

산림조성,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일

이돈구 동문은 "사람의 DNA 중 99%가 숲에서부터 나온다"며 숲과 사람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숲 안에 있을 때 정신과 육체 모두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돈구 교수는 "산림을 살리는 것은 생존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숲의 복원이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 "숲을 가꾸는 것 역시 비즈니스이며 2조를 들여 109조의 직 · 간접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돈구 동문은 산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평창의 가리왕산을 조성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며 산림을 완벽히 조성하는 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장에서 은퇴 했지만 산림조성과 생태복원에 대한 외부 활동까지 그만둔 것은 아니다. 우선 영남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부임해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을 상대로 산림자원 및 생태복원과정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다. 학생시절 미국 유학을 하면서 당시 외국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치면서 자신도 훗날 다른 국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결심을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UNCCD(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의 제 10차 의장으로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 모두 산림 조성활동은 끊기지 않은 채 계속돼야 한다는 이돈구 동문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후배들에게 한 마디

이돈구 동문은 우선 후배들에게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도 "대학에 들어온 뒤 생겼던 목표 덕에 꾸준히 노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목표가 확고해야 공부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Ships 라는 이돈구 동문만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3-Ships란 'Relationship, Partnership, Leadership' 을 말하는데 우선 한 분야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 후 타인과의 협력을 '인정' 이라는 방법을 통해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이러한 바탕 위에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더욱 큰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산림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해나가는 이돈구 동문과의 만남은 뜻 깊은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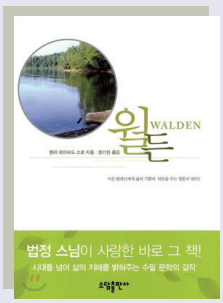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최은국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응용생물학전공에서 곤충생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광범 교수!

이광범 교수
(응용생물학전공)

푸근한 인상이 매력적인 이광범 교수는 매일 같이 관악산을 볼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이광범 교수는 본교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동물학과 곤충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 랭카스터 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지금은 본교 응용생물화학부에서 곤충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동 · 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월든〉

이광범 교수가 추천한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다. 월든은 저가가 직접 2년 동안 체험한 숲속 생활을 바탕으로 쓴 수필로써 자연주의의 멋과 인생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연 체험기이자 문명 비판서이다.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안정된 삶보다는 정직한 육체노동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삶을 선호하였다. 책 제목인 월든은 미국 메사추세츠주 콩코드 시 근처에 위치한 작은 호수의 이름이다. 데이비드 소로는 도시와 문명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이 호숫가에 작은 움막집을 짓고, 자연을 벗 삼아 2년 동안 혼자 소규모 밭농사와 수렵에 의지하며 살아갔다. 책의 구성은 작가가 원시적 삶의 바탕에서 느낀 월든 호수의 아름다운 풍광과 호수 주변의 다양한 생물의 관찰에 대한 서술, 작가 자신의 숲에서의 일상생활,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기술 되어 있다.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수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자연주의적,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피력하며 인습과 물욕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책의 말미에 소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음율이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광범 교수는 크게 과욕하지 않으며 자기의 길을 걷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의 자세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기고, 더 많은 사람들의 위에 올라서야한다는 논리에 익숙해진 현대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잣대를 물질적인 편안함에 두며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가 만든 경쟁의 바다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삶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으며,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청춘의 시기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로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청춘들이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을 잘 벌고, 사회적 평판이 높은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상실해 간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속적 가치관이 인간의 삶의 방향마저 획일화 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광범 교수는 이러한 세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책의 맺음말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면서 청춘들에게 깊게 새겨들을 말이라고 조언했다.
“나는 경험에 의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즉, 사람이 자기의 꿈의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기가 그리던 바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보통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월든」을 추천해준 이광범 교수가 추천한 다음 호의 주인공은 바이오소재학과의 이기훈 교수다. 다음 호에서 이기훈 교수를 만나보자!
이기훈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천윤석**

〈중앙일보〉 2013. 4. 1

이정재 첫 직선 교수협회장 융합 학문 필요성도 강조

이정재(서울대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정재(63) 서울대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 대학 최초의 직선 교수협의회장이다. 지난달 18~22일 약 2,200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그들의 대표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는 사실이 교육계에선 적지 않은 화제가 됐다. 이 교수는 투표율 61%(1,343명), 득표율 64%로 협의회장에 뽑혔다.

공식취임한 지난달 27일 이 교수를 만났다. '첫 직선제가 이뤄진 배경이 뭐냐' 는 질문에 이 교수는 "법인화 문제"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통과된 법인화법대로 서울대가 법인화된다면 이는 발전이 아니라 퇴행이라고 본 교수들의 위기 의식이 투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한 법인화였지만, 법인 이사회 등을 통한 교육부 간섭으로 예산 사용조차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총장까지 간선제로 선출되면 학교는 이사회 말만 들을 소지가 크고, 결국 학교의 격만 낮아지게 될 것"이란 경계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총장 소환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재 교수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법인화 이슈뿐만 아니라 융합 학문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대 흐름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아이폰은 만들 당시 이미 전화기 술과 컴퓨터 기술 모두 필요 수준은 넘었지만 둘을 합칠 생각을 하지 못해 늦게 태어난 것"이라며 "깊이와 융합 중 지금은 후자에 보다 신경써야할 타이밍"이라고 했다. 이 교수 자신도 농지법 등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밝아 현재 법대에서 강의를 하며 '학문 융합' 을 실천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공무원으로 일(1975~92)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글 · 사진=한영익 기자

〈한국일보〉 2013. 6. 1.

농업 예산의 두 가지 문제

이태호(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990년대 초반 농산물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는 농업 예산을 증액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융자 정책,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과 농업인의 노력, 그리고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 변화는 한국 농업을 적지 않게 변화시켰다.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새 정부가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출범했으니 그간의 경험을 돌이켜 보고 예산 규모와 분배의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업 예산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예산 규모 측면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융자이다. 거의 매년 농업이 국민 생산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정부 예산이 투 · 융자된다는 주장과 아직도 농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으니 더 많은 투 · 융자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의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필자는 두 주장은 관점이 다를 뿐 모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농업에 대한 정부의 투 · 융자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과다한 정부의 투 · 융자 예산이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배정되어 오히려 그 농업인을 신용불량자의 길로 내모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또 농업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국 농업부문의 1인당 자본 축적량은 농업인구 1인당 약 6,000달러인데 이것은 미국(10만 6,000달러), 일본(8만 6,000달러), 네덜란드(2만 7,000달러) 등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자본 축적량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투 · 융자를 계속하되 짧은 시간에 과도한 투 · 융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고 노쇠한 농업인이 많은 농업은 빠른 시간에 집중되는 정부의 투 · 융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성급한 투 · 융자는 농업에 흡수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나 제조업 부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넘치지 않도록 서서히 참을성 있게 속도를 조절해가며 투 · 융자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호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다음으로 예산의 분배 측면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쌀직불제) 예산이다. 쌀직불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접지불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약 1조 2,500억원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쌀직불제는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쌀 경작면적이 넓은 농가의 소득 보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막상 도움이 필요한 경작면적이 좁은 농가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경작하는 논 면적 순으로 하위 50%를 차지하는 약 60만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논 면적의 총 합계는 약 4만㏊로서 경작되는 전체 논 면적 84만㏊의 약 5%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상위 8%에 해당하는 약 9만 농가는 전체 논의 약 50%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경작 면적대로 쌀직불제 예산 1조 2,500억원을 분배한다면 상위 8%를 차지하는 9만 농가에 전체 예산의 절반인 6,250억원이 돌아가고 하위 50%에 속하는 약 60만 농가에게는 전체 예산의 20분의 1에 불과한 약 625억원만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상위 8% 농가는 농가당 약 700만원을 받고 하위 50% 농가는 농가당 약 1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쌀직불제 개선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지불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배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현재 농업예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혀보았다. 새 정부가 농업의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형평성있는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농생대 기금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3. 01. 01 ~ 2013. 06.30까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입니다.

기금출연 (2013. 01. 01 ~ 2013. 06. 30) 누적금액 : 49,200,000원

100만원 이상

㈜고추와육종	6,000,000
이전제(임산가공 · 70)	5,000,000
㈜투플러스코스팜	5,000,000
유원에코사이언스	5,000,000
(주) 프로챌코리아	5,000,000
㈜에이티랩	3,000,000
㈜고추와육종	3,000,000
강신백	3,000,000
(주)숲에서	3,000,000
(주)아데나	3,000,000
(주) 녹색식물연구소	3,000,000
실험누리과학관(대학원 · 82)	2,000,000
한성T&I	2,000,000
최학근(최윤희 학부모)	1,000,000

10만원 이상

박수철(산림자원 · 82)	200,000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기금출연(2000. 01. 01 ~ 2012. 12. 31) 누적금액 : 5,166,000,000원

(유)PPG코리아
(재)목운문화재단 한인규 (52)축산학
(재)유연장학회
(주)내츄로바이오텍
(주)생명의나무
(주)서울신문사
(주)신농
(주)케이티앤에프
(주)하이스
53학번 동기회
59학번 동기회(재미회원)
69학번 동기회
69학번 여성동기회
70학번 동기회
71학번 동기회
81학번 원예동문동기회
가나바이오텍㈜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강미정 농가정학
강병철 (86)원예학
강예완 학부모
강창희 (66)농경제학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고종열 (87)축산학(박사)
고희종 (76)농학
광주MBC
구자환 (81)농학
권숙황 학부모
권정혁 (60)농학
권 철 (59)축산학
김경욱 (68)농공학
김관수 (82)농경제학
김광호 (68)식품공학
김국형 (83)농생물학
김규옥 학부모
김근숙 농화학
김기선 (74)원예학
김동암 (52)축산학
김동윤 (48)농경제학
김동태 (62)농경제학
김명종 (70)임산공학
김무열 (64)농공학
김민균 (82)농화학
김병동 (62)농학
김상곤 농업교육
김상돈 (44)축산학
김석구 (55)임학
김성배 (85)농생물학
김성수 (63)농업교육
김성일 (76)임학
김수민 (2003)환경재료과학
김영권 농학
김영도 (68)축산학
김영배 (85)축산학
김영복 (72)농공학
김영상 (58)농학
김영성 (59)농경제학
김영호 (73)농생물학
김유용 (83)축산학
김유용, 윤원희
김인식 (64)농학
김장원 서울대직원
김정한 (75)농화학
김종무 (59)농학
김진모 (81)농업교육
김진우 (2006)산림과학부
김진의 (59)축산학
김태수 (66)임학
김현중 (83)임산공학
김호탁 (58)농경제학
김희발 (86)동물자원과학
나승일 (81)농산업교육
노희명 (76)농화학
농생대 기획실
농생대 동창회
농생대 수목원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농학과 동기회
농협중앙회
농화학 동문회
도운회 (61)농화학
동화특수산업㈜
류관희 (63)농공학
류덕희 ㈜경동제약 대표이사
류순호 (55)농화학
무 명 (55)농공학
문성훈 (86)식품공학
문지애 (77)식품공학
문태화 (71)식품공학
바이오사이드테크
박관화 (62)농화학
박기주 (69)농업교육
박낙희 (83)농업교육
박시우 (65)농생물학
박원규 (60)농공학
박은우 (73)농생물학
박정현 (64)농업교육
박종국 (57)농화학
박창서 (61)농경제학
박창호 (58)임학
박필선 (90)산림자원학
박효근 (59)농학
반성환 (50)농경제학
백남천 (81)농학
백중현 (79)임산가공학
부경생 (60)농생물학
브이에프티
서문원 (74)농학
서민영 서울대직원
서병륜 (69)농공학
서울신문사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서학수 (65)농학
성호경 학부모
손정익 (75)농공학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신재익 (60)농화학
신젠타코리아㈜
신한풍 (59)농학
신현호 (79)원예학
신희순 (69)잠사학
심용섭 (70)농업교육
씰테크
안동만 조경학 교수
안동환 (86)농경제학
안성규 (76)임학
안원영 (55)임학
양태진 (85)원예학
양호석 (57)농화학
엄기덕 (46)농화학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
에스워터㈜
연은실
염동해 (74)조경학
오기봉 (78)농화학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온경용 (79)원예학
우리농장

기금출연 CALS Foundation

기금출연(2000. 01. 01 ~ 2012. 12. 31)

우무일 (64)임학
우보명 (57)임학
우석상 (83)임학
원광엠에프디㈜ (86)농화학
원후식 (56)농생물학
유상렬 (78)식품공학
유상철 (64)축산학
유원에코사이언스㈜
유한킴벌리
윤계섭 (53)임학
윤여창 (74)임학
윤용인 (57)농가정학
윤원희 김유용 교수 부인
윤익건설
윤혜정 (90)임산공학
윤희진 (62)축산학
이건호 (67)농경제학
이광회 (75)농학
이기훈 (91)천연섬유
이내수 (58)농경제학
이돈구 (65)임학
이동근 (82)조경학
이동찬 (82)농공학
이두이 (66)농학
이득용 (52)농경제학
이명훈 (69)농경제학
이무하 (67)축산학
이미경 (74)농화학
이미순 (56)농학
이병근 (67)농경제학
이병묵 (64)농생물학
이병일 (57)원예학
이삼휘 (66)농화학
이상기 (79)농화학
이상영 (65)잠사학
이상우 (89)임학
이상훈 (88)조경학
이석하 (78)농학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이수정 (65)농가정학
이승구 (66)농화학
이승환 (80)농생물학
이시혁 (80)농생물학
이온규 (77)농학
이완주 (63)잠사학
이용창 父 (99)생물자원공학부
이용환 (79)농생물학
이우신 (75)임학
이인모 (65)농경제학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이장희
이재갑
이재진 (65)농학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이정식 (69)원예학
이정훈 父 (2000) 식물생산과학부
이종영 (70)임산가공학
이준호 (74)농생물학
이중용 (77)농공학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이철우 (61)농경제학
이춘만 (73)임학
이충한 (2009)동물생명공학
이태호 (74)농경제학
이필우 (53)임학
이한강 (69)임학
이현수 (60)농화학
이형주 (66)농화학
이 홍 (70)농화학
이희석 (57)농생물학
이희재 (78)원예학
일본동문회
임경순 (54)축산학
임승빈 조경학 교수
임용재 (67)농경제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임정묵 동물생명공학 교수
장우상 (63)잠사학
장진성 (78)임학
장창순 (53)농경제학
장태평
장학균학부모
장휴동 (59)농경제학
재일동창생
전창후 (83)원예학
정구민 (84)축산학
정민섭 (59)임학
정윤환 (56)임학
정일영 (62)축산학
정종훈 (77)농공학
정주상 (77)임학
정진구 (65)농공학
정헌석 (63)농화학
정희석 (60)임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조도현 서울대직원
조민성 父 (97)농경제학 사회학부
조성인 (77)농공학
조재영 (39)농학
조종수 (66)잠사학
㈜고추와육종
㈜내츄로바이오텍
㈜녹색식물연구소
㈜누보
㈜밀투밸런스
㈜바이오포아
㈜베스트텍코리아
㈜블루인바이로먼트엔텍
㈜비르앤마이크로
㈜비비씨엔에프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생명과기술
㈜센소메트릭스
㈜숲에서
㈜신택
㈜싸이퍼인텔리전스
㈜아데나
㈜에스씨아이
㈜에스씨에프
㈜에스이오
㈜에이티랩
㈜에이피디
㈜에코엘이디라이트
㈜에프엔피
㈜여러분의 천년초
㈜오리엔탈드림
㈜유원테크
㈜이레웰
㈜이지코스
㈜장수로
㈜추비로
㈜프로챌코리아
㈜하이스
㈜한국애그로바이오
㈜한성T&I
㈜해냄테크
㈜현우그린
㈜IFC
㈜SK텔레콤
직업과정CEO 과정
진정우 학부모
차상석 연세대
채수군 (54)잠사학
채영암 (60)농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최상호 (78)식품공학
최연홍 (56)잠사학
최윤재 (73)축산학
최인규 (80)임산공학
최정우 父 (2000)생물자원공학부
최진용 (84)농공학
최홍림 (71)농공학
투플러스코스팜㈜
패션푸드㈜
프로챌코리아
피타코이드㈜
하종규 (75)축산학
한국마사회
한국전파기지국(주)
한상율 (72)농업교육
한재용 (80)축산학
한준호 (64)임학
현의송 (61)잠사학
현정오 (66)농생물학
현진호 (88)천연섬유학
홍상욱 (83)원예학
홍인식 (79)원예학
홍종일 (80)축산학
홍종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화인엔터프라
환경지도자고위과정
황인규 (76)농생물학
CALSP
KBS한국방송
MBC문화방송
RNL생명과학㈜
㈜오리엔탈드림
실험누리과학관 (82)
(주)넥스켐
㈜숲에서
실험누리과학관 (82)
최고농업정책과정 14기
유원에코사이언스㈜
한성T&I
㈜에이티랩
㈜씨에스텍
실험누리과학관 (82)
정진화
실험누리과학관 (82)
김유용, 윤원희
㈜녹색식물연구소
실험누리과학관 (82)
이경국 (78)
고 강석권, 고 최하자 유족
㈜프로챌코리아
실험누리과학관 (82)
㈜에이피디
실험누리과학관 (82)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한성T&I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서울신문사
제11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실험누리과학관 (82)
익명 (71)
(재)목운문화재단
(재)목운문화재단
㈜누보
실험누리과학관 (82)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
㈜지지에프바이오
제10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실험누리과학관 (82)
김경욱
㈜블루비에스
실험누리과학관 (8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안성규 (76)
㈜비비씨엔에프
서울신문사
㈜숲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eople 농생대 사람들

[동문동정]

▶ **이무근**(농생물학과64)동문은 4월13일 미국 일리노이대학 사범대학 동문회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였다.

▶ **이돈구**(임학과 65)동문은 4월 16일 박정희대학원 특임석좌교수에 위촉되었다.

▶ **김용하**(임학과 79)동문은 4월 22일 산림청 차장에 임명되었다.

▶ **이준원**(농업교육과 81)동문은 4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에 임명되었다.

▶ **조호연**(동물자원과학 77)동문은 6월 5일 씨티씨바이오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교수동정]

▶ **김성균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ymposium on World Heritage Studies"에 기조연설자로 초빙되어 "Cultural Landscapes in Asia and about ACLA"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또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핑퉁시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ymposium on Waterfront Plann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에 기조연설자로 초빙되어 "Sustainable Waterfront and Urban River Restoration in Korea"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 **이 찬 교수**(농산업교육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개최되는 ASTD 2013 IC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에 참석하였다. ASTD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최대의 인력개발 전문 협회로, 이찬 교수는 올해로 7년 연속 컨퍼런스 발표자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Fast fitting into the new job using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라는 주제로 GS건설의 인력개발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다.

▶ **김희발 교수**(농생명공학부) 연구팀의 연구논문"Ubiquitous polygenicity of human complex traits: genome-wide analysis of 49 traits in Koreans"이 영국 온라인 우수논문 검색 시스템인 'Faculty of 1000 Prime' (이하 F1000Prime) 선정되었다. 김희발 교수는 F1000Prime 추천논문으로 선정된 공을 인정받아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빛사(한국을 빛낸 사람들)로도 선정됐다.
또한 김희발 교수 연구팀(김희발 교수 이태헌 박사 김규원 박사과정)은 국제 오리 컨소시엄을 통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생물학적 방어기작 오리 진화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오리가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기작은 베타-디펜신(β-defensin)과 BTNL (butyrophilin-like) 유전자군에 의해서 최적화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의 결과는 유전학 분야에서 최고의 과학지인 Nature Genetics 6월 10일 온라인 판에 실렸다.

▶ **최상호 교수**(농생명공학부)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체방어시스템연구센터의 김명희 박사 연구팀이 주도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감염 후 어떻게 생존하여 병원성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기전이 규명되어, 비브리오 패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연구는 글로벌프론티어 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단장 김성훈),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 KRIBB 전문연구사업(원장 오태광)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유병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국제적 권위지인 미국국립과학회보 'PNAS' 에 온라인(7월 5일) 게재되었다(논문명 : Structural insights into the regulation of sialic acid catabolism by the Vibrio vulnificus transcriptional repressor NanR).

▶ **서정용 교수**(농생명공학부 바이오모듈레이션 사업단) 연구팀(서정용 교수, 유태경 박사과정)은 생체 내에서 신호 전달 역할을 맡는 단백질의 결합 과정을 관측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이 3월 18일 화학 분야 권위지인 '응용화학' (Angewandte Chemie)에 게재되었다.

[동창회 소식]

▶ 농생대 동창회(회장 이현수)는 5월 11일 201동 101호 강당에서 2013년 상록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 명의 동문의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 이현수(농화학60) 동문이 제9대 동창회장에 취임(임기 3년)하였고, 정기총회를 통해 김형옥(농화학50), 정기수(농경제54), 손해일(잠사67), 남성우(축산69)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79학번 주관의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회 및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가 제3식당(75-1동) 3층에서 거행되었으며, 이 행사에서는 재즈가수 및 통기타 가수의 공연과 함께 해산물뷔페의 오찬이 있었고 많은 선물과 경품도 주어졌다.

★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대외협력 · 홍보팀]
(T. 880-4538, calsweb@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7709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평창그린바이오 T.880-4537/2897 F.873-0125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공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 · 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5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0 F.886-4868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작실 T.880-4619
식품공장 T.880-4824